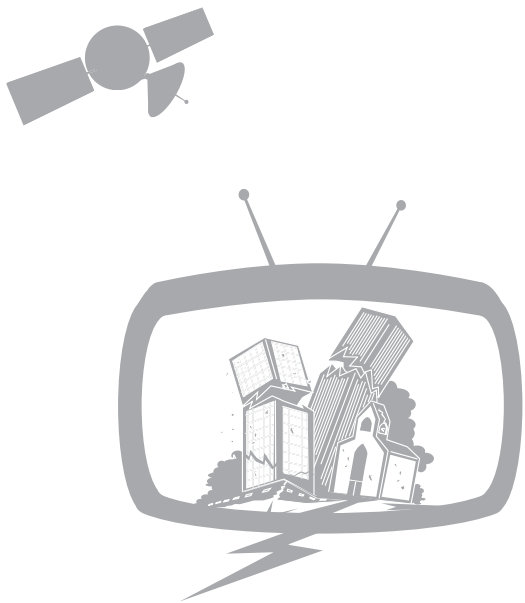


일본의 매스컴은 동일본대지진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후지모토 도시카즈 (Fujimoto Toshikazu)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실로 많다.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올해 3월 11일 일본열도를 강타한 미증유의 대지진은 재난보도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었다.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재해대국 일본에서는 모든 보도기관이 늘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방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방송사업자는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규모 화재,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야 한다.” 일본은 도쿄에만 해도 6개의 지상파 방송국이 있는데 특히 수입의 90퍼센트를 시청자가 부담하는 공영방송 NHK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아주 무겁다.

그런데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바로 보도윤리다. 보도윤리란 보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재난보도는 일반 보도와는 달리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긴급시의 방송이다. 그만큼 윤리를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윤리를 지키지 않는 보도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인명피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재해피해자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다. 과연 일본의 보도는 이번 지진을 어떻게 전했을까? 윤리를 지키며 보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NHK와 민간방송 그리고 신문 등의 재난보도를 살펴볼까 한다.

“윤리를 지키지 않는 보도는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인명피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재해피해자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다.”

1. 성공적이었던 NHK의 지진 경보 시스템

지진이 일어나면 민간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채널을 NHK로 돌린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태풍이 북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각 방송국마다 일기예보에 힘을 쏟지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CM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일기예보를 자세히 방송해주는 NHK다.

이번 지진도 NHK가 먼저 보도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3월 11일 14시 46분, NHK종합방송은 생방송으로 국회를 중계하고 있었다. 그 화면에 ‘긴급지진속보’ 자막이 돌연 나왔다. 긴급지진속보란 큰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전 국민에게 경계하도록 호소하는 일본기상청의 독자적인 속보 시스템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P파라는 작은 흔들림 즉 초기미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S파 즉 주요동이라고 하는 큰 흔들림이다. P파의 전달 속도는 초속 7Km, S파의 전달 속도는 4Km다. 기상청에서는 P파를 관측한 시점에서 긴급속보를 발령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곧 찾아올 큰 흔들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진 때도 긴급속보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는 아직 아무런 흔들림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중계를 담당하고 있던 아나운서가 “긴급지진속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한 흔들림에 주의해주십시오. 지진이 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데로 피하십시오.

시오. 침착하게 행동해주십시오”라고 되풀이 하고 있을 때 국회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1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지금 초등학교 등에서는 긴급지진속보에 대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1분의 여유가 있으면 책상 밑에 몸을 피할 수가 있다.

곧 이어서 국회에서 방송센터의 뉴스 스튜디오로 화면이 바뀌고 그때부터 예상치 못했던 기나긴 재난방송이 시작됐다. 대쓰나미경보가 나온 것은 3분 20초쯤 지나서였다. 아나운서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곧 피난하도록 몇 번이고 되풀이 했다. 그때까지 드라마의 재방송이나 광고방송을 계속하고 있던 민간방송국이 그제야 긴급방송을 시작했다.

NHK의 전 방송국의 건물 그리고 주요 항구, 공항 등 모두 400군데 이상의 지점에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늘 일본열도를 감시하고 있다. 또, 전국에 9개의 기지에 헬기 11대가 배치되어 있고, 도쿄의 기지에는 24시간 체제로 승무원을 대기시키고 있다. TV화면에는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찍은 바닷가의 현황이 금방 비쳤고 얼마 후, 쓰나미가 덮치는 끔찍한 장면이 헬기에서 중계 방송됐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났다. 방송은 원전사고 그리고 이재민들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 등을 계속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재난방송의 문제점들 또한 많이 부각됐다. 각 방송국은 물론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설치한 BPO 즉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향상기구에도 지진발생 직후부터 시청자들의 의견이 쇄도했다.

2. 헬기에 의한 중계의 문제점

“헬기에 의한 피해지역의 중계는 삼가해 주었으면

한다. 무너진 건물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돼 인명구조에 지장이 생긴다.” BPO가 접수한 시청자의 의견이다.

헬기에 의한 취재에 대해서는 고배지진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취재를 하는 헬기는 한두 대가 아니다. 각 방송국 신문사마다 다투다시피 헬기를 날렸기 때문이다.

NHK는 NHK직원과 NHK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취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 판단기준이 되는 지침, 즉, 『방송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항공취재에 있어서는 항공법에 따른 안전비행을 지킴과 동시에 재난시의 구조작업과 시민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비행시의 소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NHK에 매뉴얼은 필요에 따라 개정돼 왔는데 이 항목은 고배지진 때에 반성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이번에도 같은 지적을 받은 셈이다.

3. 이재민에 대한 인터뷰

“가족을 잃은 심정은? 같은 질문을 하는 아나운서가 있다. 그런 질문을 안해 주었으면 한다.”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그렇지 않아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인터뷰도 늘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남편과 딸이 실종 중인 주부에게 집요하게 질문해 울부짖게 한 인터뷰가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 주부의 마음보다 시청률을 우선시 한 인터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민뿐만 아니라 현지의 행정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들은 방송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산적돼 있다. 한편 방송

이번 재난보도에서는 NHK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NHK가 늘 재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들은 평상시에도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모의방송도 한다. 칭찬을 받은 침착한 태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국은 현지의 상황을 빨리 파악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 NHK의 아나운서들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하고 나서 ‘지금 여쭙 봐도 됩니까?’ 라고 양해를 얻고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시작한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아나운서들의 인터뷰도 많이 달라졌다.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이재민들은 가족과 재산을 잃고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취재나 방송에 있어서는 유족들의 슬픔을 생각해서 이재민의 프라이버시에 배려해야 한다. 이재민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취재태도는 삼가해야 한다.’

일찍이 NHK도 사고현장에서 울부짖는 유가족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의 심정은?’ 식의 인터뷰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윤리 의식은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향상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난보도에서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재민에 대한 취재는 재해에 비참함을 전하는 것 이외에 행정당국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다.’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다. 보도 윤리를 지키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 또한 재난 보도가 해야 할 일이다.

4. 칭찬을 받은 NHK의 아나운서들

이번 재난보도에서는 NHK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NHK가 늘 재난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들은 평상시에도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모의방송도 한다. 칭찬을 받은 침착한 태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나운서가 호들갑을 떨면 국민들은 불안해져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

NHK의 아나운서들은 재난보도에 필요한 신뢰감을 늘 요구받고 있다. NHK에서도 아나운서가 바라이 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나 NHK의 아나운서로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신뢰감이 없는 아나운서의 재난보도는 아무도 안 믿는다.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NHK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은 엄하게 조심해야 한다.’

5. 비판이 잇따른 민간방송국

쓰나미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 계센누마시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던 어떤 민간방송국의 아나운서는 중계방송이 시작한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장면이 방영돼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또 다른 방송국의 스태프가 현지에서 미팅을 할 때 ‘이런 그림이 박력이 있는 거다’든지 ‘자원봉사를 하는 놈들’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네티즌의 고발도 있었다. 또한, 간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중계 스태프들이 ‘또 원전 이야기겠지’, ‘어, 웃긴다’ 등의 이른

바 ‘뒷담화’가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방송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일본에서도 시청률을 우선한 나머지 외모나 젊은 층의 선호도를 중시해서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경우가 특히 민간방송에서 종종 있다. 이번 재난방송을 통해 그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있었다.

6. 교만한 기자들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인 이상의 모럴과 상식이 요구된다. 마스크는 마치 특권이라도 갖고 있는 것 같은 교만한 행동을 당장 고쳐야 한다.” 이것은 BPO가 접수한 민원이다.

도쿄전력의 원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절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마스크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의 언동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야! 안 들리지 않아!’, ‘사장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아? 니가 정정하라’ 등등.

기자회견 때의 기자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2005년에도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해 3월 고배 근처에서 107명이 사망한 열차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그때 기자회견에 임한 철도회사 JR의 담당자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의 기자가 던진 “너희들은 필요 없다! 빨리 사장을 데리고 오라” 등의 발언이 전국의 생방송되자 항의가 쇄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사회부장은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것은 유감이다. 깊이 사과한다”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 ‘아니, 생방송을 했으니까 알게 된 것이지 기자들은 늘 그런 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취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할 때는 늘 방송윤리와 공평 공정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절도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자들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변호사와 기자다. 그러나 기자들도 일찍이 깡패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람을 협박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널리스트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직업 중 하나이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에 대한 불신감을 품은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원전사고에 책임을 추궁한다 해도 윤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NHK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취재를 할 때는 성실하게 접하고 서로의 신뢰감을 소중히 한다. 취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재할 때는 늘 방송윤리와 공평 공정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절도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자들이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7. 사재기를 부채질하는 보도

“심각한 가솔린 부족과 식료품 부족의 원인은 보도가 아닌가. 슈퍼마켓이나 주유소의 행렬을 되풀이 방송해 사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지적도 맞는 측면이 있다. 보도하는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행정당국이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방송국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도는 의도와

는 다르게 사재기가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심한 혼란이 없었지만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가 꼭 있어야 될 것이다.

8. 잔혹한 장면의 보도

“충격적인 쓰나미의 영상이 하루에 수십 번이나 되풀이 방송되고 있다. 이런 영상은 이제 자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번 재난의 무서움은 이제 모든 일본사람이 알고 있다. 이 영상은 이재민에게 공포심을 되살리게 하고 트라우마를 남긴다.” BPO가 접수한 시청자의 의견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은 이재민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9·11 테러사건 때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빌딩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영상은 지금 NHK에서도 사용을 자중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시체의 영상도 방송에는 안 나온다. 같은 이유다.

9. 원전보도

원전사건에 대해서도 『NHK 가이드라인』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많지가 않다.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는 인간의 오관으로서는 직접 파악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 방사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NHK 방송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할 뿐이었다는 신랄한 비판도 받고 있다. NHK의 과학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보도는 함부로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고 국민들이 침착하게 행동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다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검증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0. 앞으로의 과제

이번 대지진에 관한 재난보도, 특히 NHK의 보도는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 NHK가 극복해야 할 큰 문제점도 부각됐다. NHK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긴급지진속보를 전하고 대쓰나미경보를 방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의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재난보도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재난보도를 잘 했다고 해도 이토록 많은 희생자를 낸 것 자체가 재난보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도 왜 이렇게 희생자가 많았는지... 보도기관들이 꼭 짚어야 할 문제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쓰나미 도달예정시간이 지나도 쓰나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간 순간 쓰나미가 덮쳤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대쓰나미 경보가 나온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보가 나와도 큰 쓰나미가 온 적이 없어서 피난을 안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방송국이 양치기 소년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또, 제방을 쌓고 쓰나미 대책이 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쓰나미가 올 줄 몰랐

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것이 다 불가항력일까?

그렇지는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교훈을 잊어버려서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재난은 잊어버릴 무렵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지진학자이며 수필가로서도 알려진 데라다 도라히코 박사가 남긴 명언이다. 역시 일본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쓰나미의 충격은 너무 커서 금방 잊어버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또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큰 해일은 다시는 안 올 것이라고 하는 방심의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보도기관의 앞으로의 역할은 이번 비극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고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 때 카메라가 찍은 수많은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